

전남대 등 등록금 감면 추진... '특별 장학금' 방식 유력

전북대 시작 다른국립대 등록금 감면 대책 봇물
“국립대 국가 정책에 발 맞춰야...대책 비슷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충남대와 전남대, 군산대 등도 등록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학기 등록 학생 전원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대 등도 등록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학기 등록 학생 전원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련(紅蓮)의 유혹

간간이 이슬비가 뿌린 지난 14일 전남 강진군 강진을 보온산 V-랜드 연꽃단지에서 짙은 붉은색의 홍련(紅蓮)이 만발해 주변 초록빛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온산 V-랜드 물놀이장은 휴장했지만 2ha면적의 연꽃단지에는 홍련과 백련이 흐드러져 신록과 함께 여름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세 계모란공원까지 있어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북대가 지난 6일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13일 경상대가 같은 방식의 등록금 감면안을 밝힌 데 이어 다른 국립대도 속속 대책을 내놓는 분위기다.

국·공립 총장들의 협의체인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상당수 국립대가 전북대처럼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남대는 최근 이진숙 총장 지시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인 반환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1학기를 다닌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10% 정도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충남대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되도록 빠르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도 ‘학생재난지원금’ 형태의 등록금 감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용예산에 학교 예산 감축분을 더해 재원을 마련 중이다. 1학기 등록 학생 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지만 1

인당 지원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학교 자원을 끌어모으는 중”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지원금을 배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대의 경우도 1학기 납부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군산대는 현재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단이 등록금 감면과 관련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대 관계자는 “전체 학생에게 10% 정도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등록금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등록금과 관련해 ‘신중론’을 펴는 국립대도 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접수받았지만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감면할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를 두고 대학본부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등심위 개최 여부나 감면 계획 등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대 관계자는 “학생들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고 있

지만 아직까지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경우 전남 총학생회가 대학본부에 공식적인 첫 ‘등록금 감면’ 요구를 함에 따라 조만간 대학본부와 학생대표단이 만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자노력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예산 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대대수 국립대가 1학기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실 납부액의 10%를 반환할지, 평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돌려줄지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입명을 요구한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사립대와 다르게 국가 지원에 기대는 부분이 크고 국가 정책에 따라 서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등록금을 감면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국립대끼리도 형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표 시점은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추가 확산 막는다”...광주시, 행정조치 29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도

광주지역에서 방문판매업체 발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비롯한 각종 행정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집합제한, 확진자 발생시설 집합금지 및 강제폐쇄 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행정조치는 오는 29일까지 연장된다.

먼저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실시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중단(시, 교육청,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노인요양 시설 면회 금지, 종사자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 ‘n차 감염’ 확산지로 꼽힌 ‘금양오피스텔’ 등 방문판매업체(직접 판매홍보관 포함 512개소)도 오는 29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11개소와 광주시가 지정한 11개소, 총 22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플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GX), 스탠딩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이고, 광주시 지정 고위험시설은 PC방, 학원(전체), 종교시설, 지하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목욕탕, 사우나, 장례식장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광복사,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29일까지 연장되지만, 시설폐쇄 조치는 추가 연장하지 않았다.

다만 방문판매업체(썬비트레이드, 썬은오피스몰, 그리고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에 대해서는 모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29일까지 연장했다.

최근 배드민턴 동호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학 체육관과 각종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 체육활동, 댄스스포츠 등 실내 집단운동도 전면 금지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직도 상황이 엄중하여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